

리메이크 '내 마음 고향' 봉축 맞아 13~14일 상영 명보아트시네마서... 하루 3차례

한국불교 최초의 영화는 1949년 제작된 윤용균 감독의 '마음의 고향'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한 영화가 박영철 감독의 '내 마음의 고향'이다.

동지승의 사모곡을 그린 영화 '내 마음의 고향'이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상영된다. 상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과 낮 12시 20분, 오후 2시 10분 등 세 차례다.

'내 마음의 고향'은 함세덕 작가가 1939년에 발표한 희곡 <동승>과 윤용균 감독이 <동승>을 원작으로 1949년 제작한 영화 '마음의 고향'을 리메이크했다.

제16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틴즈아이 부문 상영작으로, 2014년 개봉된 이래 대구, 안동 등 지방에서만 상영돼 '내 마음의 고향'의 수도권 상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명보아트시네마에서 오후 2시 10분 상영 후에는 출연배우의 무대인사와 감독의 관객과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일 간 관람료는 일반인은 5천 원, 어르신은 3천 원.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보물 흥천사 천수관음상 불교중앙박물관 특별공개 봉축 맞아 오는 8월까지 공개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최근 보물 1891호로 지정된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법)은 오는 8월 12일까지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특별전을 진행한다.

천수천안관음보살은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을 응시하고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로, 관음보살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변화관음(變化觀音)의 대표적인 예다.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하나의 얼굴과 42개의 손과 발을 가진 이른바 1면 42수 관음보살상이다. 40개의 손과 합장을 하고 있는 두 손을 합하여 42수(手)로 표현했다. 기록이 없어 정확한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여말선초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불상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희귀한 예로 주목받고 있다. (02) 2011-1965 신성민 기자

다큐·연극·대담... 안방서 불교 만나다

BTN·BBS·지상파 3사 봉축 프로그램 '다채'

올해도 어김없이 부처님오신날이 찾아왔다. 불교계 방송은 물론 KBS 등 지상파 방송들도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했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는 출가 진흥 다큐부터 선지식 인터뷰, 연극 공연 중계 등을 새롭게 제작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선보인다.

BTN이 편성한 주요 봉축특집프로그램은 △스무살 상원의의 선택, 출가(5월 13일 16:50, 5월 14일 8:30, 5월 15일 12:20) △진제대선사 특별대담 운누리에 지혜의 빛을(5월 10일 08:30, 5월 13일 23:00) △가야산에서 만나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대종사(5월 11일 8:30, 5월 14일 14:50) △덕숭산에서 길을 묻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5월 12일 20:00, 5월 14일 7:30) △윤장대 천년의 비밀을 찾아서(5월 14일 13:50, 5월 15일 22:00, 5월 17일 21:00) △연극 경허(5월 10일 13:50, 5월 14일 20:00) 등이다.

특히 '스무살 상원의의 선택, 출가'는 20살 청년 상원이가 결심한 출가의 과정을 생생히 담아내고 있으며, 현재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대표 선지식인 진제·원각·설정 스님의 연속 대담 시리즈는 부처님의 오신 뜻과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사찰에 있는 불구 윤장대에 대한 비밀을 찾아가는 '윤장대 천년의 비밀을 찾아서'와 경허 스님의 구도 여정을 담은 연극 '경허'의 녹화 중계도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이하 BBS)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스리랑카, 대만 등 주요 불교국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와 40일간의 연등회 준비 과정을 영상에 담아낸 프로그램이 주목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스리랑카에서 오신 부처님(5월 12일 13:30) △대만 불광산사 성공기를 담은 '기적'(5월 10



BBS불교방송 봉축프로그램 '연등회 40일간의 기록' 중 한 장면.

BTN불교TV
진제·원각·설정 스님 대담 출가 진흥 다큐 제작 '눈길'

BBS불교방송
연등회 준비과정 영상에 담아 대만 등 주요 불교국가 다큐도

지상파 3사
부처님오신날 법회 생중계 '심우도' 주계 영화 편성도

일 12:30, 15:30) △연등회 40일간의 기록, 봉축을 준비하는 사람들(5월 14일 9:00, 5월 15일 19:30) 등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지상파 방송 중 가장 많은 프로그램 편성된 곳은 KBS다. KBS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특집프로그램을 선보인다.

5월 7일 오전 7시 20분 방영된 2TV

'영상앨범 산'에는 이기흥 조계종중앙신도회장이 출연해 괴산 낙영산과 천년 고찰 공림사를 찾았다. 10일 오전 9시 방영된 1TV 아침마당에는 수락산 도안사 주지 선목 혜자 스님이 출연해 108산 시순례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방영 예정 프로그램으로는 △1TV 다큐 '하늘에서 본 암자' (5월 13일 22:00) △1TV 특집 다큐 '출가, 그들이 산사로 간 까닭은' (5월 14일 20:05) △1TV 영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23:15) 등이 있다.

MBC는 5월 13일 금요일 오전 12시 12분부터 1시 20분까지 다큐 '세상을 토닥토닥 동네스님 혜민'을 재방송한다.

이와 함께 5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8시까지 특집다큐를 방영한다. 또 5월 15일 일요일 오전 1시부터 2시까지 MBC네트워크 특선 '강신주의 해탈프로젝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방영한다. SBS는 5월 14일 오전 9시 55분 지난해 방영된 SBS스페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법륜 스님 죽은즉설'을 재방송한다. 신성민 기자

팔만대장경 最古 인출본 한국에 온다

동국대박물관, 개교 110주년 '여시아문' 특별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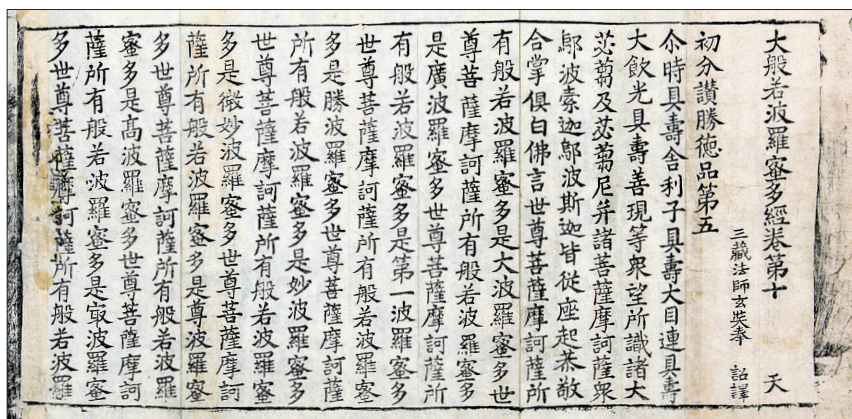
6월 10일까지 5주간 진행
日 오타니대 소장본 전시
양국 구도열정 만남의 장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팔만대장경 인출본이 한국을 찾는다.

동국대 박물관(관장 정우택)은 5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교 1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여시아문(如是我聞)-깨달음의 길'을 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본의 오타니대학(大谷大學) 박물관의 협조로 이뤄진다.

이번에 전시되는 성보문화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오타니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 재조대장경 인출본(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10(大般若波羅蜜多經 卷第10))이다. 이 판본은 고려 우왕 7년에 목은 이색 등이 공민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찍은 것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600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됐다.

587상자에 4995첩에 달하는 이 판본은



일본 오타니대학 소장 <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10>.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팔만대장경 인출본이다. 동국대 개교 110주년 특별전을 위해 600년만에 한국을 찾는다.

경기 여주 신복사에 봉안됐다가, 조선 태종 14년(1414)에 일본 국왕에게 선물로 보내졌다. 현재 한국에는 1865년 인출한 강원 열정사 소장본이 가장 오래된 사례로, 오타니 대학 소장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팔만대장경 인출본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발굴한 원각사의 <대불정여래밀인수증류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제1-2(大佛頂如來密因修護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第1-2)>도 주목할만한 성보문화재다.

원각사 소장본 <수능엄경>은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는 방법인 '석독구결

(釋讀口訣)'이 표기돼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한문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이는 현존하는 전적 중 한글이 적혀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며, 일반에는 최초로 공개된다.

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은 "일본 오타니대학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전을 기획했다"며 "오타니대학이 소장한 경전과 해석서는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아 한국불교사상 복원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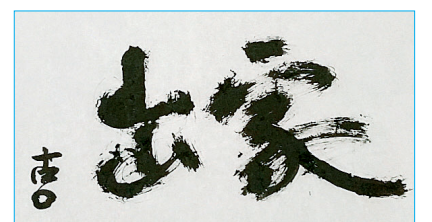
僧俗 넘은 20년 지기 기록 '한눈에'

명정 스님·최광호 작가, 17일까지 전시회

<열자(列子)> '탕문편'에는 백아와 종자기의 우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거문고를 잘 타던 백아의 연주에 종자기가 이를 듣고 백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표현했다. 이내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더 이상 자신의 소리를 알 아줄 사람이 없다며 거문고를 부쳤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지음(知音)'이다.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나 스님과 재가자가 쉽게 지기(知己)의 인연을 쌓기란 쉽지 않다.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장 명정 스님과 최광호 사진작가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기'이자 '스승과 제자'로 살았다. 오는 5월 17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나무에서 열리는 '고원 명정 선목 명필' 전시회는 명정 스님의 선묵 전시회이자 나이에테처럼 커져가 쌓인 지음의 기록들이 담긴 전시회이다.

최광호 작가는 "잘 살기 위해 사진기를 들었다. 내면의 근원적인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극락암을 찾아 명정 스님께 답을 들었다"면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는 명정 스님은 나에게 큰 스승이었다. 내면의 깊은 마음의 소리를 원할 때



명정 스님의 선묵 '출가' (사진 위)와 최광호 사진작가의 '명정 스님01' (사진 아래)

스님께 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작가노트를 통해 솔화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갤러리 나무는 "지기로, 사제로 20년간 담아낸 최 작가의 사진과 녹차로 쓴 명정 스님의 선묵은 사진과 서화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준다"면서 "관객들은 급변하는 디지털적 공간과 시간들 속에서 고서를 들추는 느낌으로 작품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종 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여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증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여경실장 : 석우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경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 대한불교조계종협의회 회장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승정원	중앙총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우	승정원장 석원정 호계원 석원정 호계원장 석초오	총회위원장 석덕오 문화원 석성산 문화원장 석철산	호법원장 석원명 포교원 석해광 포교원장 석해광	감찰원장 석법현 기획원 석지혜 기획원장 석지혜	사정원장 석법경 교육원 석철우 교육원장 석철우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원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안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운오
의전부장 석영오

종앙위원회
전국비구니회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석능현
전국신도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우승위원장 임태일
종단봉사위원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영남 범음범패 통도사 소리 15기 교육원생 모집

- 교육과정 : 초급반(안채비) 3개월, 중급반(범패기초) 3개월, 고등반(사물 다루는 법 및 고급범패) 6개월
- 연구반에서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특강 형식으로 계속 강의 받게 됩니다.
- 법패교수 : 종정 청봉 큰스님의 직강으로 진행됩니다.
- 개강일 : 2016년 6월 20일 오후 2시
- * 영남 범음범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타종단의 스님들도 관계 없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중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